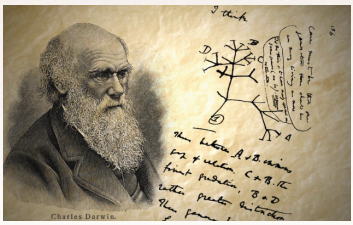
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Volume 25 Number 06 06 2017

보이는 것의 유혹

진화론자들이 늘 하는 방식

다윈의 '종의 기원'이 등장하던 무렵에 유럽에 퍼져 있던 대표적인 사고로 자연주의(naturalism)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자연주의란 '모든 것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접근하려는 자세를 말한다. 이 자연주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진화론이 꼽힌다. 그러므로 진화론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 자연주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보이는 것을 비교하는 같은 패턴의 시도를 한다. 아래 소개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들이다.

다윈의 핀치새: 다윈은 갈라파고스 섬에서 부리가 다양한 핀치새를 보았다. 그리고 부리가 다양해지다 보면 결국 다른 종류의 새로도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아무리 부리가 다양해도 핀치새라는 종류가 변할 수 없다.



진화나무: 모든 생물들이 간단한 생물로부터 파생되었다고 하며 줄로 연결하여 진화 계통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그러나 이런 생물 간의 중간 생물

지질시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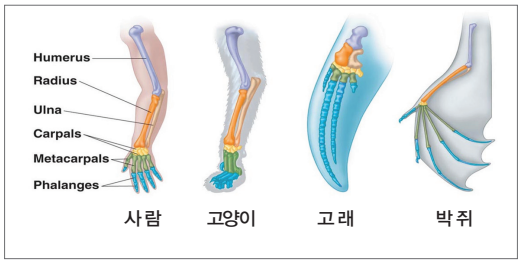
대	기	세	생물변화
신생대	제4기	현세 홀로세	
	제3기	신신세 중신세 원신세 시신세	
중생대	백악기		
	쥬라기		
	트라이아스기		
고생대	페름기		
	펜실베니아기		
	미시시피기		
	데본기		
	실루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캠브리아기		
선캠브리아기			

은 살아있는 것이나 화석에서나 발견되지 않는다. 단지 진화에 대한 믿음으로 책에 배열한 것이다.

지질시대표: 간단한 생물의 화석부터 복잡한 화석으로 그리고 맨 위에 인류 화석까지 나열한 표이다. 그러나 지구상에 화석이 이와 같이 발견되는 곳은 어디에도 없으며, 화석이나 그 화석을 담고 있는 지층은 연대측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측정을 통해서 순서를 정한 것이 아니다.

인류의 진화 계통표: 소위 영장류의 두개골 화석을 진화의 순서로 모아 놓은 그림이다. 그러나 이들 두개골들이 이와 같이 진화의 순서로 발견되지 않는다. 이 두개골들은 아주 드물게 발견될 뿐 아니라 나중에는 발표와는 달리 완전한 사람이나 원숭이의 두개골로 판명이 났다. 이들 역시 나이를 측정해서 순서를 정해진 것들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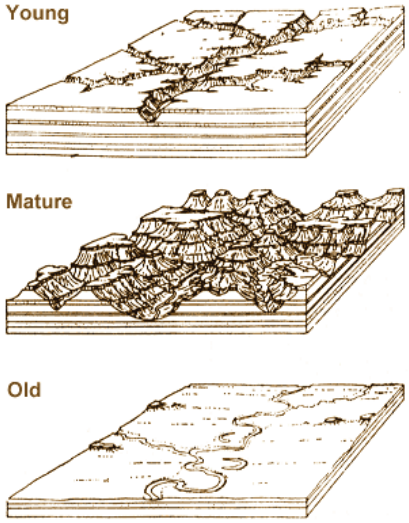
상동기관: 사람의 팔, 고양이의 앞발, 고래의 지느러미, 박쥐의 날개가 서로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한 조상에서 진화된 증거로 내세워진다. 그러나 결코 사람의 팔이 고양이 앞발을, 고래의 지느러미가 박쥐의 날개를 대신할 수 없다. 실제로 우리는 모양보다 기능에 더 주목해야 한다. 더군다나 각각의 목적으로 지어진 기관들이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은 창조자의 전지전능하신 면을 더욱 잘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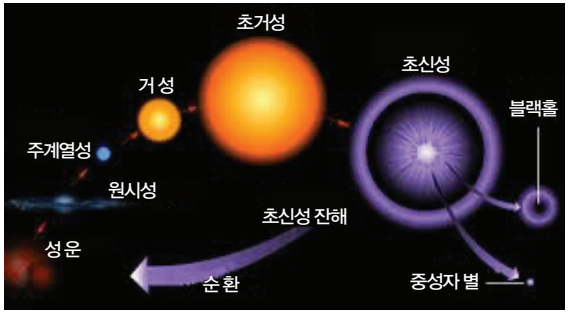
말화석: 네 동물의 화석을 말발굽의 개수를 갖고 네 개, 세 개, 두 개, 한 개 순으로 나열한 그림이다. 실제로 이 화석들이 이와 같이 순서적으로 발견되지 않으며, 수 년 전에 이 그림은 대부분의 미국 교과서에 삭제되었다.

헤켈의 발생반복설: 물고기, 도룡뇽, 거북이, 닭, 토끼, 사람 등 그 배아의 모습들이 유사하다는 그림이다. 그러나 이 그림은 후에 조작된 그림으로 결론이 났다. 그리고 말화석과 같은 시기에 미국 교과서에 삭제되었다.

침식 윤회: 유년기, 장년기, 노년기 등 지형이 오랜 침식에 의해 반복적으로 진행된다는 그림이다. 그러나 이런 변화되는 과정을 그린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따로 떨어져 있는 지형을 자신의 진화론적 믿음에 따라 책에 모아 놓은 것뿐이다. 오늘날의 지형학자들은 이런 침식과정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 각 지형은 격변을 경험한 이래로 그 모습이 거의 변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을 바꾸었다.



별의 진화: 우주 공간에는 크기와 질량이 다양한 수많은 별들이 갖가지 색깔과 밝기를 내고 있다. 그러나 별이 먼지와 가스로 이뤄진 성운으로부터 탄생하여, 핵융합을 일으키는 가스체가 되고, 수명이 다 되면 급팽창 단계를 거쳐 폭발로 마감한다는 일련의 진화 과정은 관찰된 사실이 아니다. 이는 실험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그 물리적 메커니즘조차 불투명하다. 별의 형성과 핵융합 반응의 시작은 오히려 과학의 미스테리이다. 그러므로, 별의 진화 역시 오랜 시간을 담보로 하여 여러 종류의 별들을 가상적 단계로 연결지은 이야기일 뿐이다.



위의 그림들은 자체가 진화의 증거가 아닌 진화론 자체이다. 어떤 것이 비슷하다고 하는 다음 단계로 변하는 과정은 관찰된 것이 아니라 진화론에 대한 믿음을 갖고 단지 책에 모아 놓은 것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그림에 쉽게 현혹된다. 그만큼 보이는 것에 약하기 때문일 것이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히 11:3)의 말씀과 같이 성경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마치 보이는 것으로만 과거를 알려고 하는 진화론자들의 시도를 경고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가?

이재만 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하나님은 누가 창조했으며, 어디로부터 왔는가?

저는 성경과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적이었던 청중들 앞에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학생은 강한 어조로 불쑥 내뱉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왔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창조했습니까?"

이 사람은 분명 제가 성경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에 대해 못마땅해 했습니다. 보통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최소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즉각 이 질문에 다른 질문으로 대답했습니다. "세익스피어의 책 햄릿의 어느 페이지에서 세익스피어를 찾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 교실에 있었던 침묵을 기억합니다 - 아마 당신은 핀이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 사람은 다음과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세익스피어는 그의 책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책을 창작했고 그 책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그의 답변은 정말로 뛰어난 대답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세익스피어는 그 책을 썼고, 그것에 얽매어 있지 않습니다 - 그는 그것에 묶여 있지 않고, 그것을 초월해서 존재합니다. 그 책은 그의 창작력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그 책의 일부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으로 저는 답변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성경의 하나님은 그의 창조물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초월해서 존재합니다. 그는 그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는 그것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으십니다."

답변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그는 시간의 틀 안의 어떤 시점에서 존재하기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어떤 시점에 시작하신 것 대신에, 그 자신이 시작이며 마침이라고 주장하십니다(계22:13). 이 말씀의 조명 하에, 그 질문은 비논리적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곳에서 오신 것도, 그 누구로부터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는 만물의 근원이시며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이십니다.

누군가 "하나님은 어디에서 왔는가" 혹은 "누가 하나님을 창조했는가"라고 물을 때, 그들은 시간이 절대적이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시간에 속박되었다고 말할 때, 그들은 하나님이 그가 창조하신 것 안에 갇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논리적 오류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포함한 – 왜냐하면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창세기 1:1) – 모든 물리적인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시며, 따라서 원인을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존재에 관한 논리적이거나 과학적인 설명을 하는데 시간을 들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단순히 전제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것들에 대하여, 실증적인 방법을 통한 과학으로, 혹은 논리적 분석에 의한, 증명을 요구하는 문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존재에 대한 선언으로 시작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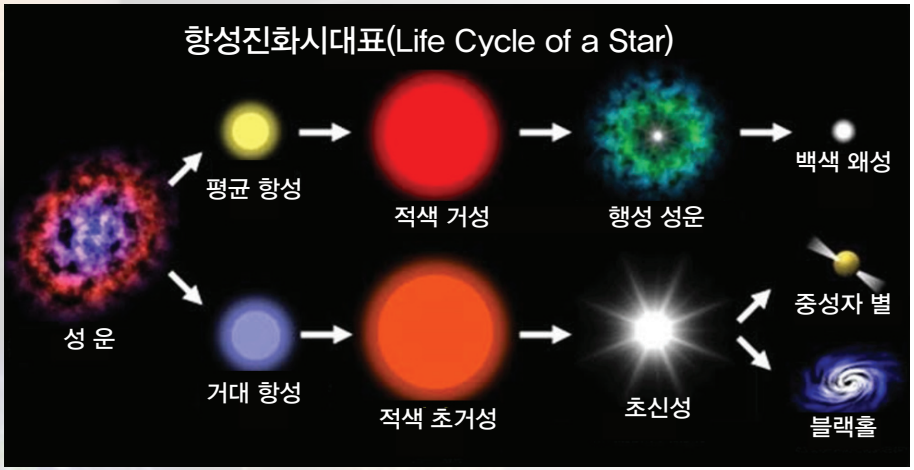
예를 들면, 만약 하나님이 그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려고 시도하신다면, 하나님은 과학보다 낮은 차원으로 전락하는 것이며, 존재하는 것들 중 가장 위대하시다는 그의 주장을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논리적인 논쟁을 사용하시려고 한다면, 논리는 하나님 보다 위대하게 격상되는 것이며, 다시금 하나님은 더 작은 것으로 격하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골2:3) 이 사실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히 6:13)

하나님은 그의 존재에 관한 궁극적인 권위이시며, 따라서 그의 말씀은 가장 위대한 권위이자 증명입니다. 사실, 논리와 자연계의 규칙성(과학의 기반)과 같은 것들은 하나님과 그의 권능으로부터 나왔거나, 기반해 있습니다. 논리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식의 연장입니다. 과학적 법칙은 단지 하나님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궁극적인 권위가 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도구입니다.

지면의 제한으로 How do we know Bible is true? 2, chapter4. Who Created God? Where Did God Come From? (Bodie Hodge)의 일부를 편집하였습니다.
번역 / 이충현

별 별의 진화 – 어디까지 사실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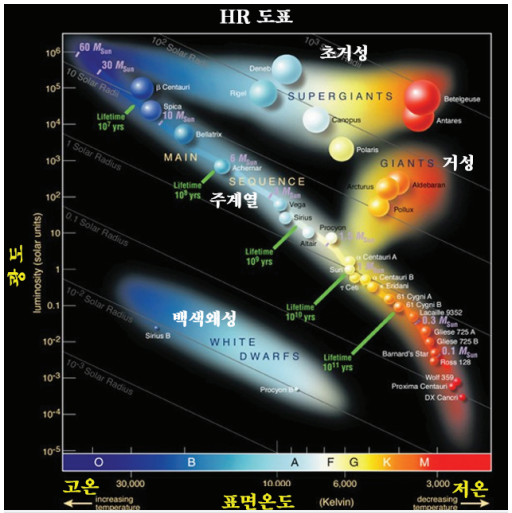


별은 핵융합 반응으로 스스로 빛을 방출하는 항성이다. 별은 중심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변환되는 핵융합과정으로 고온의 에너지가 생성되는데, 이때 밖으로 향하는 방출압력과 항성 내부로 당겨지는 중력이 균형을 이뤄 구형의 가스체를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이해를 기초하여 별의 수명은 핵융합의 연료인 수소 가스를 모두 소모하게 되는 기간으로 추산한다. 오늘날 항성의 진화 분야에서는 별의 생성에서부터 종말까지를 다루며, 진화천문학자들은 모든 항성이 그림과 같이 탄생으로부터 성장과 죽음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여긴다.

태양 크기의 별들은 중심에서 수소의 연소가 어느 정도 끝나가면서 외부로 뿜어내는 방출압력이 약해지고 그결과로 중력과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물리적인 현상이 간단하지 않지만 결국 내부 물질들은 자체 붕괴를 일으킬 것이다. 중력의 수축으로 별의 중심 온도가 다시 올라가면 헬륨의 핵융합 반응을 점화시키고, 방출압력이 다시 상승하면서 급팽창을 일으켜서 거성(Giant)이 된다는 설명이다. 그 후 연료의 고갈로 더욱 불안정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바깥 부분은 팽창해버리고, 중심은 붕괴하여 백색왜성이라는 종말 단계를 맞는다는 것이다.

한편, 태양 보다 훨신 큰 거대 항성의 경우는 적색 초거성을 거쳐서 초신성(super nova) 폭발 후 중성자 별이 되거나 무한대의 중력의 당김(gravitational warp)으로 블랙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 마지막 단계에서 별들이 뿜어낸 잔재들은 우주 공간에 남겨지게 되고, 이 물질들이 다시 다음 세대 별을 탄생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어떤 과학적 데이터로부터 나온 것이며, 또 검증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일까? 잘 아는 바와 같이 별들은 지구로부터 매우 먼 거리에 있다. 태양같이 가깝다고 하여도 접근할 수 없는 고온의 가스체이다. 그러므로, 직접 관찰하거나 탐사가 불가능하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료는 오직 별빛이고 그 빛이 유일한 연구대상이다.



천문학자들은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별빛의 특성을 연구하고 별의 표면온도와 밝기(광도)를 추정해낸다. 1900년대 헤르츠스프렁(Hertzsprung)과 러셀(Russell)은 별들의 온도와 광도를 조사하여 좌표에 표시 했고, 이를 토대로 별들의 특성을 한 눈에 볼수 있도록 HR도표를 만들었다. 이 도표의 좌측 상단은 매우 뜨겁고 밝은 별이, 우측 하단에는 온도가 낮고 밝기가 어두운 별이 놓이게 된다. 진화론자들은 이 도표를 통하여 별들의 진화 과정을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분명, 우리가 관측하는 많은 별들은 서로 다른 다양한 색깔과 밝기를 갖는다. 주계열에 있는 별들은, 푸른 별일수록 굉장히 밝은데, 이런 별들은 고온의 에너지를 다량 방출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수소를 소모하고 있을 것이므로, 질량이 큰 항성임을 예측할 수 있다. 반면, 붉고 어두운 별들은 그만큼 에너지 방출량이 적으므로 질량도 작을 것이다.

그외 특이한 별들은 표면온도에 비해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이 현저히 커서 밝게 빛나는 것들이다. 이들은 아마도 매우 거대해서 비교적 낮은 온도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표면적으로 방출되는 빛의 양이 많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이 그룹은 표면온도에 따라 초거성과 적색거성으로 구분된다. 반대로, 표면온도에 비해서 매우 어둡게 보이는 별들이 있는데,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이라고 여기며, 이들을 백색왜성이라고 부른다.

이와 같이 별의 크기와 질량을 HR 도표로부터 추정할 수 있으며, 비슷한 물리적 특성을 갖는 별들을 분류하도록 돕는다. 하지만, 이러한 분류가 곧 주계열 별들이 오랜 시간 후에 초거성이나 거성 단계로 진행해 온 것인지, 그 후 백색왜성이나 중성자 별 또는 블랙홀로 종말을 맞게 된 것인지 그 과정을 말해주지는 않는다. 그것은 그 누구도 관찰할 수도 없고, 실험할 수도 없는 가상적인 추측일 뿐이다.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다양한 밝기와 다양한 색깔의 빛을 내는 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여러 종류의 항성들로 창조된 것인지, 길고 긴 세월동안 주계열 별들이 탄생하고, 그것이 거성단계로 진화해간 것인지 검증할 수 없다.

특별히 이 도표가 보여주는 사실은 우주에 있는 별들의 특성치 분포가 균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은하에는 주계열 별들이 현저히 많으며, 이는 빅뱅 모델이 요구하는 균일한 우주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결과이다. 또한, 진화적인 연대로 말해서 백색왜성의 수명이 최소 수백억 년에서 1조 년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정말로 항성이 진화의 과정을 반복해왔다면, 우리는 은하계에서 무수히 많은 백색왜성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는 매우 드물다. 또한, 진화론적인 장구한 연대는 수없이 많은 초거성들이 폭발하여 무수한 초신성을 발생시켰어야 한다. 따라서 은하 내에는 매우 많은 초신성 잔해가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천 년에 해당하는 양만 관측되고 있다. 이처럼 실제 관측은 우주가 별의 진화를 허용할만큼 긴 시간이 흐르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결국, 항성의 진화는 먼지와 가스로 이뤄진 성운(stellar nebula)으로부터 별이 탄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폭발로 마감하여 다시 성운을 남기는 순환이며, 장구한 시간의 주기적 반복을 의미한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가장 가까운 별, 태양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과정조차도 완전히 이해를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별의 탄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수소를 연소시킬 만큼의 거대한 초고온 가스체가 어떻게 성운으로부터 형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자연주의 하에서 과학은 별의 탄생을 위해 필요한 막대한 양의 수소와 헬륨을 포함한 물질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설명할 길이 없다. 그러므로 항성의 진화는 첫 단계부터 실험과학으로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며, 많은 추측과 가정을 바탕으로 연결된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starry host)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사40:26)

이동용 박사
항공기계공학

ACT News

생터성경사역원

지난 4월 8-14일 생터성경사역원(대표 이애실)에서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했습니다. 참석자의 대부분이 '어성경이 읽어지네'와 함께 성경을 전하는 강사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성경을 직접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는 분들로서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게 임하셨고, 많은 질문이 오갔습니다. 참석자들은 각자의 생각에 수십억 년의 진화론적 사고가 얼마나 크게 자리잡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큰 장애물이라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앞으로 생터성경사역원은 전문 강사뿐 아니라 자녀들도 창탐에 지속적으로 참여시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생터성경사역원

높은뜻 푸른교회

지난 4월 16-21일 높은뜻 푸른교회(담임목사 문희곤)에서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했습니다. 2년 전부터 일찍이 계획을 세우고 온 교회입니다. 진화론의 문제점뿐 아니라 한국에서 거세게 불고 있는 타협이론들의 문제점과 현재 이들이 젊은 세대에 얼마큼 깊게 스며 있는지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타협이론은 진화론의 비과학성뿐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성품 등과 결코 부합될 수 없는 비논리적 이론이라는 것에 공감했습니다. 창탐 마지막날 소감 시간에는 다음 세대를 이곳에 반드시 보내야 한다는 다짐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창탐에는 김동호 목사님께서 참석하셔서 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늘샘교회

지난 4월 23-27일 대구 하늘샘 교회(담임목사 안무열)에서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하셨습니다. 하늘샘 교회는 2년 전에 안무열 목사님께서 참석하신 후 교인들을 모시고 온 것입니다. 이번 팀은 첫 날부터 타협이론에 대한 질문이 많았던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만큼 타협이론의 문제점을 확실히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번 창탐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자신도 타협이론을 분별없이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했으며,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멀어졌을 것이라고 간증했습니다.

높은뜻 푸른교회

하늘샘교회

기독교 미래연구소

기독교 미래연구소

지난 5월 1-7일 기독교 미래연구소(대표목사 소재찬)에서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했습니다. 31명의 목사님 내외가 버스 한 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기독교 미래연구소는 이번이 세 번째 참석입니다. 그동안은 2년마다 참석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매년 참석하기로 하셨습니다. 목사님들께서는 한국 교회에 들어온 진화론적 사고가 심각한 수준인 것을 알고 다음 세대에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세미나와 각 교회에서의 창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몽골국제대학

영어권 사역

빌(Bill Hoesch)은 지난 4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네비게이토 선교회의 글렌 에이리 본부에서 약 30여명의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창세기 홍수와 그랜드캐년"을 주제로 강의를 하였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해마다 글렌 에이리에서 제공하는 유명 프로그램인 "암석 탐사"의 2017년 시즌이 시작된 것입니다. 빌은 3년 전에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도왔는데, 이곳의 암석들은 그랜드캐년 지층의 수직적 순서와 평행을 이루며, 노아홍수 후기 지각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글렌 에이리의 초청과 따뜻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15일에는 남가주의 The Bible Science Association의 정기 모임에서 홍수의 증거들에 대해 강의를 인도했습니다. 약 60명 정도의 청중들이 매우 진지하게 경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몽고 국제 대학의 교수 초청으로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몽고 울란바토르의 국제 대학교를 방문하여, 창세기 홍수, 창조와 진화, 세인트헬렌 화산과 지질학 등의 세미나를 인도하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불교와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의 영향하에 있는 몽고의 수도에 복음의 빛이 비춰진 시간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창조 대 진화 강의는 국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150여명의 학생, 교수, 그 외 참가자들이 경청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초청에 감사하며, 여정을 위한 모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EM 창조과학탐사 모집

일정 : 7월 10~13일 (3박4일)
대상 : 영어권 9학년 ~ 청년 및 대학생
인도 : Bill Hoesch, John Kim
참가비 : $150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 www.HisArk.com

참여 신청 및 문의 : HisArk@gmail.com, 562-868-1697
(이메일로 참여신청을 문의하시면 참가신청서 양식을 보내드립니다.)

창세기 1장과 종의 기원(1)

화석에 달린 두 꼬리표

우리는 과거에 발생한 사건들을 역사라고 일컫는다. 역사는 시공간 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과관계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원인이 없었다면 어떤 변화나 사건도 일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역사는 실제 존재하는 무언가에 의해 발생한 실제 있었던 일이다.

흔히 화석이 과거를 말해준다고 생각한다. 화석은 현재 우리 손에 있지만 분명 과거의 산물이다. 과거 한 때 이 지구상에 살았고, 어떤 일에 의해서 흙 속에 파묻히게 된 후, 돌처럼 변하여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화석은 역사 속에 실제 존재했던 생물체가 어떤 사건에 의해 만들어진 것임에 틀림없다.

또한, 오늘날 진화생물학자들의 주장처럼 진화 결과 이 모든 식물과 동물이 존재하는 것이라면, 진화의 과정은 아주 긴 시간의 과거 역사를 필요로 한다. 진화가 실제 일어났다면, 지금의 수백만 종의 모습이 되기까지 매우 길고 연속적인 전이(변환)과정이 있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의 수많은 고리들이 우리의 역사였다면, 전지구적으로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한다.

여기서 진화론자들이 채택했던 매우 커다란 전제가 도출된다. '화석은 과거 진화의 과정을 반영하고 있으며, 오랜 진화 역사의 산물이다.' 이것은 화석도, 진화도 모두 과거에 발생했으므로, 진화라는 개념 속에서 화석을 보겠다는 설정이다. 이러한 전제 속에서, 지질학, 고생물학, 인류학 등이 발전되었고, 발견되는 화석에는 자연스럽게 두 개의 꼬리표를 붙이게 되었다. 하나는 'xx시대' 라는 꼬리표로서, 진화의 수십억 년 역사 중 특정 시기에 살았다는 의미이다. 다른 하나는 'oooo년 전' 이라는 꼬리표로서,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수억 년과 같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가를 보여주는 나이표이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의구심을 갖는 문제 중에 하나가 '공룡의 화석'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룡화석에 붙은 이 두 꼬리표에 너무 익숙하고 그것을 진짜 역사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티라노사우르스의 뼈화석에는 중생대 백악기에 출현한 공룡이라는 시대표와 적어도 6800만~6500만 년 전에 살았다는 나이표를 붙여 놓는다. 그러면, 도대체 공룡은 성경 역사에 어디쯤 들어가야 하는 것일까? 성경 역사 전체는 만 년이 넘지 않는데, 수천만 년, 수억 년이라는 나이는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 것일까? 그것들이 살았고 멸종했던 역사가 성경의 창조와는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일까?…….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질문들이 줄줄이 이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사고는, 티라노사우르스 화석이 과거에 어떤 과정을 거쳐 화석화되었는지에 대한 과학적이고 성경적인 접근보다는 그 화석에 이미 붙어있는 두 개의 꼬리표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아버린다. 문제는 이런 진화론적 지질시대 꼬리표와 수천만 년 전이라는 오랜 연대 꼬리표로 인해 발생되는 질문들에 대해 아이들도, 어른들도 적절한 답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오면 성경을 보지만, 세상에서 배운 지구의 역사와 성경은 별개의 것이 되어 버린다. 그러면서, '아~ 성경의 앞부분은 그저 당시 사람들에게만 관련된 이야기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며 온갖 질문들을 덮어두게 된다. 더이상 성경은 지구와 우주의 역사, 그리고 생명의 역사에 대해 아무런 사실적인 이해를 주지 못하는 책이 되어 버린다. '그런 역사적 사실은 복음을 믿는데 그리 중요하지 않아' 라고 빗겨가버린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시며(골2:3), 참된 증인이시다(계3:14). 또, 성경은 모든 세대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딤후3:16).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딤후3:16, 히4:12). 성경이 모든 지식을 서술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모든 지식과 이해의 기초를 제공함에 틀림없다(잠9:10).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과 끝이신 분이시므로(계1:8, 사41:4), 처음부터 끝까지의 참된 역사에 대한 지식의 기초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인 성경을 통해 과거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역사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노휘성
과학교사

창조과학탐사

생터성경사역원

4/8~4/15, 2017

<황명숙>
'어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이 감동이었고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에 창조과학탐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창조탐사를 통해서 더욱더 성경이 사실이라는 생각이 확고해감을 느끼며 제가 보고 들은 것을 성경방 학생들에게 확고하게 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경>
어릴적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창세기의 창조에 대해서는 크게 특별하다는 의미를 두지 않았었다. 이번 여행에서 선교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동안 내 신앙이 자라지 않은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창조가 설화가 아닌 사실이었다는 것이 이번 여행에서 믿어지는 결과가 있었다.

<김경희>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 부담이 있었는데 창탐을 마치며 성경이 가슴 벅차게 느껴지며 말씀이신 성경을 심히 사랑하고 가까이 하게 될 것이 스스로 기대됩니다.

<김홍철>
창조과학탐사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더욱 확실히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참석하기전에 선교사님의 강의 듣고 참석했는데 사전에 준비하고 참여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이 계속되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송병철>
와보니 경비와 시간이 아깝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때까지 신앙의 걸림돌이었던 창조가 신뢰로 다가 오면서 확실하지 않았던 믿음의 뿌리가 제 자리 잡게 됨을 느꼈다.

<남연옥>
한번으로 족하기엔 너무나 아쉬운 창탐이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으로서 알아야 할 모든 엑기스가 이 일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노아 홍수의 사실적인 증거뿐 아니라 복음에 대한 진리를 더 많이 접하기 때문이다.

● 편집되지 않은 많은 간증은 Homepage(www.hisark.com)의 "ACT간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역일정

2017 ACT Schedule

5/25-6/1	창조과학탐사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이재만
5/26	창조과학세미나 (또감사교회), Bill Hoesch, 노휘성
6/4-9	창조과학탐사 (대전온누리교회), 이재만
6/9-10	창조과학세미나 (LA소망장로교회EM), 김선욱
6/10	창조과학세미나 (순회선교단), 이재만
6/12-14	창조과학세미나 (LA University Bible Fellowship), 김선욱
6/12-20	창조과학탐사 (기쁨의동산교회), 이재만
6.19-22	창조과학세미나 (Johns Creek Korean Church Youth Retreat, GA), 김선욱
6/21-25	창조과학탐사 (합동신학원), 이재만
6/26-28	창조과학탐사 (미주한인예장 남가주노회 EM), 김선욱
7/3-10	창조과학탐사 (과천약수교회), 이재만
7/10-13	창조과학탐사 (EM모집), Bill Hoesch
7/13-19	창조과학탐사 (한동대학교수), 이재만
7/20-23	창조과학탐사 (안산동산고등학교), 이재만
7/24-28	창조과학탐사 (선한목자 젊은이교회), 이재만
7/30	창조과학세미나(Agape International Baptist Church, VA), 김선욱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 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ACT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창조과학선교회

창조과학선교회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P.O. Box 819, Norwalk, CA 90650
Office Address | 10529 Leeds St., Norwalk, CA 90650
Tel. 562-868-1697 www.HisArk.com / hisark@gmail.com